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7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7.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6.(수)	담당부서	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
담당과장	김종연 팀장(044-203-4541)	담 당 자	최재혁 사무관(044-203-4542)

산업 디지털 전환, 민간에 답이 있다

- **금년 1/4분기**, 410개 기업·기관 참여해 **디지털 전환 과제 41개 발굴**
- 업계 **"정부 지원 규모 확대,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요청"**
- 산업부 **"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**('22.7)에 맞춰 **다방면 지원에 총력"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와 **「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」**(이하 연대)는 4월 7일(목) 서울 코엑스에서 연대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, **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**하였다.

【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간담회 개요 】

- **일시/장소**: '22. 4. 7(목) 09:30 ~ 11:00 / 코엑스 3F 컨퍼런스 E룸(E7)
- **주요내용**: 연대 성과 점검 및 향후 운영방향 논의, 참여기업 건의사항 청취 등
- **참석자**: **(정부)**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**(유관기관)** 산업기술진흥원, 산업지능화협회, **(수요기업)** 유일로보틱스, TYM, 신영그룹, 세아창원특수강, 서울바이오시스, 엠케이폴렉스 **(공급기업)** 더존비즈온, 다쏘시스템 코리아, 디엑스티 **(협단체)**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**(연대 전문위원)** 3개社

○ 동 연대는 주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**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**하는 **민간 협의체**로서,

○ 산업부는 연대에서 발굴한 과제중 성공 가능성, 산업 파급효과 등이 큰 과제를 선별하여 **기술개발·사업화를 지원**하고 그 **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**하고 있다.

총 285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, 금년 신규로 41개 과제 발굴

□ 연대는 '20.10월 6개 업종으로 출범한 이후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, 현재 **총 10개 업종***에서 업계·학계·연구계 등 **410개 기관**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,

* 미래차, 가전·전자, 헬스케어, 조선, 유통, 철강, 섬유화학, 에너지, 기계, 소재

○ 현재까지 산업 현장의 **공정혁신, 제품·서비스 개발,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** 등을 추진하는 **디지털 전환 과제를 총 285개 발굴***하였다.

* '20년 70개 → '21년 174개 → '22년(1/4) 41개 → '22년(2/4~) 60개 이상~

○ 이 중 **5개의 대표과제가 산업부 R&D 사업으로 연계**되어 지원받고 있으며,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**'한걸음프로젝트 R&D사업'**(13개 과제)을 통해 **추가 연계·지원**한다.

* 한걸음 프로젝트(R&D): 안전·환경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산업데이터·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현장 중심으로 체감 선도사례 확산

□ 한편, 산업부는 올해가 **「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」 시행 원년**('22.7)으로 기존 사업의 틀을 벗어난 **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**하고 있다.

○ ❶高성장 잠재기업의 **全사적 디지털 전환**, ❷밸류체인內 **기업간 협업을 통한 밸류체인 혁신**, ❸ICT·제조·서비스를 아우르는 **산업간 대융합** 등 **민간 주도의 디지털 협업 생태계가 조성**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개편을 계획중이다.

○ 이러한 방향하에 연대에서는 '22년 1/4분기 동안 **410개 참여기업·기관이 41개에 달하는 수요과제를 발굴**하였고, 올해 연말까지 고도화 작업과 함께 과제 수를 **100개 이상으로 확대**할 계획이다.

○ 발굴된 과제는 **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* 심의**를 거쳐 **선도사업으로 선정**하고 **관계부처 협업하에 집중 지원할 계획**이다.

* 「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」 근거, (위원장) 산업부 장관, (위원) 관계부처 차관, 민간 전문가

업계 “정부 지원 규모 확대, 업종에 구분없는 기업간 협업 지원 요청”

□ 금일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·기관들은 **연대의 활동 방향, 업계 건의 사항**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.

① **민간의 디지털 전환 수요**에 비해 **정부 지원 규모가 작음**
→ **다양한 지원 사업을 신설**하고 **규모를 확대**할 필요

② 연대 활동에 **다양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**하고, **업종을 가로지르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대를 결성**하여 **異업종간 협업 장려**

③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**과제 발굴 외에도 다양한 미션을 연대에 부여**하고 적절한 **보상 부여**

④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 생성·활용 등 **주요 이슈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** 필요

산업부 “법 시행에 맞춰 다방면 지원 강구하여 총력 지원”

□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“**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답은 민간 현장**에 있으며, **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**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하고,

○ “정부는 민간이 힘을 합쳐 **협업하고 스스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총력 지원할 것**“임을 밝혔다.

○ 아울러, ”우리 산업에 **디지털 전환 붐(Boom)이 일어나도록 정부-민간, 민간-민간 소통의 자리**를 자주 마련하겠다“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(☎ 044-203-4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